

신행변화 '결실' ... 민족종교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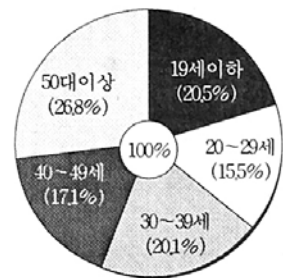
이번 통계청의 인구총조사결과 나타난 1.9% 불교인구 증가는 불교계에 힘을 실어주는 상당하고 무척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한없이 힘을 팽창해 가는듯 보였던 개신교보다 0.7%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전통종교로서의 불교의 지력이 드러났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난 94년 통계청의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구를 포함 종교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종교학자등 관계자들은 시민사회역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90년대 들어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증으로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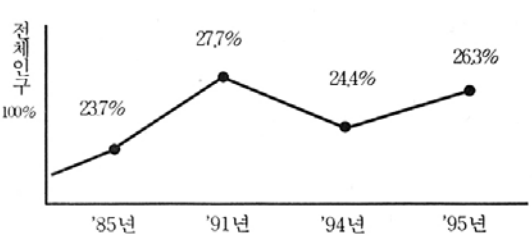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종교에 대한 의존도와 관심이 줄어들어 따라 종교인도 감소된다는 것. 특히 불교는 고질적인 분규, 재산싸움등 추한 모습이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점이 불교인구의 주 감소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불교인구의 증가는 불교에 대한 호감이 되살아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불교계의 각 분야가 안정됨에 따라 제역할을 찾기 시작해 불교계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비자주적이고 침체된 모습과 산중불교 기복불교의 모습만을 전방적으로 보여온 불교계가 최근 들어 복지 환경 공명 선거 인권 등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있는 점이 포교로 연결됐

95 통계청조사 불교인구 증가의 의의

◇'95년 연령별 불교인 분포



◇불교인구 변화 추세



(자료: 통계청 제공)

사회복지 참여... 방송·직장·도심포교등 '한몫' '어른 불심' 증가 추세... 새싹불자키우기 '숙제'

다는 분석이다. 70년대부터 사회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섰던 가톨릭의 신도수가 지난 10년동안 감소없이 꾸준한 증가를 보여온 것은 가톨릭의 대 사회적 이미지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불교관련 출판과 영상물의 폭발적 증가와 불교방송 불교TV 개국, 불교교양대학, 직장법회 증가 등으로 인한 대중포교의 원활한 등도 불자 증가의 중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가 각 위치에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이시대가 필요로 하는 불교가 된다면 불자수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측했다.

최준식교수(종교문화연구원장·이대교수)도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식층들의 우리것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민족종교로의 위상을 찾는 현상"으로 분석하며 "불교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홍스님(금강정사 주지)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행면에서 충실한 진실된 불자가 늘어나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포교관계자들은 불교인구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만족하기 보다는 미래

불교를 위한 새싹불자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통계에서도 성인종교인구는 타종교에 비해 월등 앞섰지만 어린이·청소년 불자(19세이하)는 1백80만명 이상 적은 수치에서도 청소년 포교에 무관심해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야말로 교계에서 입버릇처럼 쓰이는 상투어 '2천만 불자'라는 허수(虛數)를 벗고 불교인이 얼마라는 정확한 숫자를 토대로 혁신적인 포교대책을 세워서 내적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경숙 기자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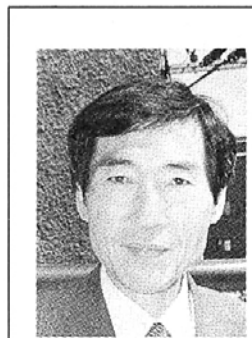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얼마전 담배를 '중독성 약물'로 규정하고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클린턴의 이같은 조처는 다분히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다 공화당 불 물 후보가 최근 청소년의 흡연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일이 있기때문에 불 물과 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흡연에 비판적이다. 그것은 사실은 미국 담배회사들의 정치자금 제공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미국의 대표적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의 경우 지난 4년간 공화당에 2백30만 달러를 헌금한데 반해 민주당에는 40만 달러를 헌금하는데 그쳤다.

하고 있어 공공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 거침없이 담배를 피운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청소년 흡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고교 3년생의 흡연율은 30%로 미국의 20%를 앞지르고 있다. 사회적 각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시장성과 전근대적 시장구조는 외국 담배회사의 공략대상으로 노출돼 있다. 특히 각종 규제도 국내 판매가 어려워진 미국 담배회사들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개방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한국 같은 나라에 입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담배회사들이 제약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한-미 담배 양해록'이 체결돼 있다. 그 결과 미국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미국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기도 어렵다. 미국의 슈퍼 통상성이 노리고 있는데다 세계 무역기구(WTO)체제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판 아편전쟁 '담배'

담배에는 타르와 피치등 20여종의 발암물질들을 포함해 서 니코틴등 각종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나 담배는 중독성 때문에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가 쉽지가 않다. 담배가 '유독성 상품'인만큼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조처는 비판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담배



장운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판에 대한 규제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담배회사들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담배 소비를 위한 돌과귀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 돌과귀가 바로 해외시장이다. 미국은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외국 담배시장에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 입력을 가한다. 현대판 '아편전쟁'인 셈이다. 1840년 청국과 영국간에 벌어진 아편전쟁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정점이었다. 영국은 자국내에서는 마약을 철저히 규제하면서도 청국에 아편을 수출하려고 전쟁까지 벌인 것이다. 그 전쟁에 청국이 져서 홍콩을 영국에 빼앗긴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다.

미국의 해외 담배시장 개방압력 대 상국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된다. 한국은 성인남성 흡연율이 67.7%로 세계 최치를 기록하고 있고 담배 소비량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인식이 사회 통념으로 통

'중독성 약물'로 규제를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해외 여행자가 늘어나 외국에서 시행중인 흡연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도 광범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같은 우리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를 '중독성 약물' 수준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싶다. 그러자면 담배회사를 정부가 운영하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격이 때문이다. 담배회사를 민영화, 경영효율을 높여 우리 담배시장을 외국 담배의 침투로부터 지켜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경제력의 규모에 비춰 정부도 이제는 정재수입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

'깨달음의 사회화...' 상설 기획단 출범 의의

지난해 성도재일을 기해 '나와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를 주제로 시작된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하 깨·사)이 지난 4월 운동본부발족을 위한 실무기획단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날 실무기획단장 성관스님(조계종 문사부장)은 "종도들이 깨·사운동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금전달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관리프로그램을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실무기획단에는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등 유관기관과 경부원 대불청 우리는선우 환경교육원등 불교계단체를 비롯 사찰종무원들이 참여하고있어 조직적인 면에서 발발교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자체분석이다.

불교사회운동 재도약 계기

법불교 후원회구성등 국민인식 개혁 앞장 등 일회성행사에 그쳐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운동본부가 요구되고있다"며 실무기획단 구성배경을 설명했다. 문사부가 추진중인 깨·사운동본부는 천주교가 펼치고있는 '한마음 한몸운동', 기독교의 YMCA와 같은 교단차원의 운동으로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시민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첫걸음으로 출범한 실무기획단은 깨·사운동을 현재의 모금운동에서 한단계발전시켜 후원회(기업 및 개인원회원)를 조직하고 불자 및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회교육, 수련소재개발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동본부의 상설화를 위해

실무기획단은 내년 깨·사운동 재창 1주년을 맞아 운동본부를 창립하기로 하고 1차사업으로 △의식화산(홍보, 캠페인성 활동, 이벤트) 및 기금 조성 △불교적 의제구성 △불자대상 사회교육사업 및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전개 할 예정이다. 이어 98년은 사업확장의 해를 정하고 △대도시 시범(조직정립)사업 △장기성 전략 사업을 위한 소본부구성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사업진행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깨·사운동은 전국의 사찰에서 모금법회를 개최, 기금 5억9천여만원을 확보해 일본고베지역 지원회지원, 대구 가스폭발사고지원, 사할린영구귀국노인 지원안정기금, 베트남 한인2세지원등 60여회에 걸쳐 지원사업을 펼쳤다. (열)

재가연합 재창립과 조계종 신도조직

전국신도회가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서는 가운데 전국재가불자연합이 재창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 조계종 중앙총회가 지난 4월 총무원 집행부에 조속한 중앙신도회 결성을 촉구하고 나서 사실상 조계종 전국규모의 신도단체가 3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신회는 7인활성화대책위를 회장취임 준비위원회로 전환 하는 한편 신도단체 당분간 '삼분정립' 100~200명 규모 재가연합 독자행보 中信·全信 연말 합류 운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직이 향후 전신회 재건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 합류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완일회장이 선출 직후 조계종총무원장 윌주스님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신도회를 일개 신도단체로 생각 해달라. 중앙신도회에 대표자격으로 참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일정 지분 확보 후 중앙신도회 합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에대해 전신회 일부에서는 "화합차원에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도 "40년 법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대의원의 의지를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윌주스님도 중회 답변에서 "신도법에 따라 지분을 갖고 동참하라고 했다"고 답변함으로써 소장승려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가불자연합은 18일 발기인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재창립에 들어갔다. 재벌련의 한 관계자는 "중단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독자적인 재가불자운동이 필요하다"고 재벌련의 성격을 밝혔다. 재벌련에는 지난 94년 개혁중단 출범에 기여했던 비교적 진취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와 전국신도회 재가불자연합 등으로 3분화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 일각에서는 세 단체의 성격이 확실한만큼 오히려 이같은 현상이 자연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안별로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윌타리안에서 어울리기는 어려우며, 억지로 합쳐야 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운)

생활 속의 불교 88

부처의 면전에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대서야 ...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 경내로 들어설 때 합장배례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곳이 재물보살의 수행처였으며 스님들이 성도를 얻으려고 용맹정진하는 보리도량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량엔 으레 불상이 봉안된 법당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불제자의 입장에서야 그곳이 성소(聖所)중의 성소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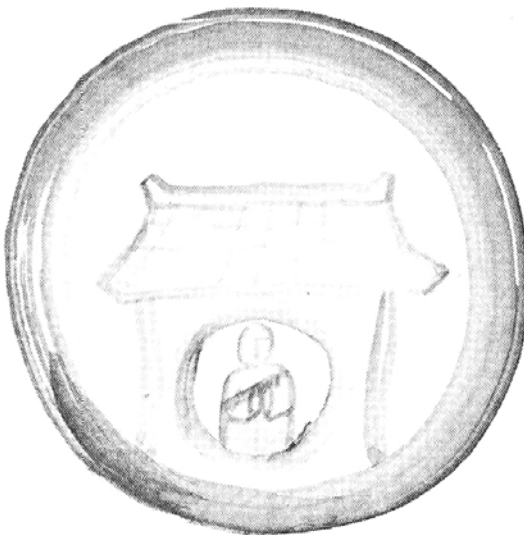
도량에서 방자한 행동을 하는 불자는 없다. 모두들 언행에 조심하고 행여 마음이 흐트러질새라 긴장한다.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음주기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벼운 계율이라도 자칫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 또 조심한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는 법당에만 있고 도량에만 주석하는게 아니라 내몸에도 있고 나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고 한다. 말하자면 내 몸이 곧 법당이

요 나 있는 곳이 곧 도량이라는 것이다. 고로 나는 움직이는 법당인 셈이며, 움직이는 법당인만큼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곧 도량이 되고,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이 곧 도량이 되는 것이다. 내가 시장엔 가면 시장이, 변소엔 가면 변소가 법당인 셈이다.

누구나 자성부처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깃들여 있다 한 것은 누구나 자성본래불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다. 고로 내 몸이 부처의 몸이요 내 형상이 부처의 형상이며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된다. 깨우치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불제자가 되고 수행하기를 자처하는 것은 이 자성본래불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나도 진짜 부처가 되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불제자가 된 것은 자성부처를 만나고 싶어 면회 신청을 해 놓은 것과 같다.



면회가 성사되는 순간을 계합이라 하고 견성이라 하고 깨달음이라 하지만 아무 면회가 이뤄지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 노력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상의 여법한 수행을 통해 쌓여간다. 그런데 면회신청만 해 놓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게 가능해질까?

바깥 도량에 가서는 계법 경건해지는 불자라도 제 도량에서 경건하기란 무척 어렵다. 우리 자신들이 일상 속에서 행주좌와 중에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계율에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껏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속임수 거짓말에다가 나아가서 범죄행위에 젖어드는 예도 없지 않다. 사찰 경내에서는 승소리조차 조심하던 이들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웬만한 과제쯤 대수롭지 않게 저지른다. 곰곰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질 일이다. 자성부처의 면전에서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니 ...

옛 선사들께서는 '빈 방에 홀로 있을 때라도 세존을 뵈듯듯이 처신하라'고 가르쳤다. 내몸이 법당이요 나 있는 곳이 도량인데 어찌 성소에서 방일한 짓을 하겠느냐는 경책의 말씀이다. 우리들은 흔히 혼자 하는 일은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더욱이 자성본래불이 일거수일투족을 내리다 보고 있음이다. 그러니 '나만' 아는 일은 없다. 법계가 알고 자성부처가 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부처의 면전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다. 불자라면 그렇다. 더구나 부처님께 면회 신청을 해놓고서 말이다.

바깥 도량에서 경건하듯이 내 안 도량에서도 경건해야 한다. 그게 참회이기도 하다.

협찬: 한기성·김혜경